

## [그말씀 설교 11]

###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본문] 욘 2:1 / 이문식 목사 / 페이지 수: 4

“내 영혼이 내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욘2.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물고기 뱃속이란 과연 선지자 요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장소 (Sitz-im-leben)였을까요? 그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장소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요나가 스스로 택한 바다의 깊음 속 스올(사망)의 뱃속에 요나를 내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완악한 요나를 바다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그 은총의 도구로 큰 물고기를 택하셨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향한 큰 사랑의 장소로 삼일삼야의 동굴 무덤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한 기이한 은총의 장소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삼일삼야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물고기 뱃속은 스올의 뱃속과 대립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마 12:39).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스올의 뱃속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즉 은총의 장소에서 터져나오는 것이지 심판의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요나를 통하여 뚜렷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항상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 절망 속에서 감사함

"주께서 나를 ……던지셨으므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인간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에 직면할 때, 이 하나님의 손을 의식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만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J.Calvin). 두려움 없이는 애통이 없으며, 경외함 없이 회개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요나는 환난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바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를 진정으로 떨게 한 것은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두렵게 한 것은 그를 주의 목전에서 몰아내시는 쫓아내시는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심한 죄책감과 열등한 자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현재 그는 육체의 죽음, 즉 바다에서의 익사가 그의 공포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절망의 근원은 그의 영혼이 영원히 그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지 아니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그의 영혼에 대고 속삭입니다. ‘너는 무슨 낮으로 지금 주님의 얼굴을 쳐다본단 말인가?’ 그의 자아는 그의 중심에서 스스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아마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거야! 나는 스스로 주의 낮을 피하였으니, 이제 나는

영원히 주의 목전에서 쫓겨 날거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양심이 율법과 결탁하여 내 자아를 사망의 포승줄로 묶으며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쳐 넣는 그 순간, 마귀가 내 귀에 대고 내 영혼에 영적 파산 선고를 선포하는 그 순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삶의 위기들이 여러분의 자아를 강타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요나는 그 절망의 자아에 대하여 깊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직 믿음만으로…… 그는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큰 물결과 파도에 휩싸여 깊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요나의 양심이 스스로 절망적인 선포-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를 하고 있는 순간, 그는 그의 자아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다시 주의 성전 -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를 바라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 이 믿음에 근거한 의지가 바로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실제로도 영적 파산 상태에 있었고, 율법의 판단으로도 죄인이었고, 양심에 예민한 자아도 스스로 절망한 그 순간, 그의 또 다른 자아는 - 양심이 아니라 믿음과 손잡는 그의 또 다른 의지는 - 스스로를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바라보겠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비된 큰 은총과 자비의 도구인 물고기로 하여금 그를 삼키게 하사, 바닷속, 스올의 뱃속에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3일 동안의 회상과 묵상 끝에 오늘 맨 먼저 바로 이 원리를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요나의 두번째 묵상은(2:5-7)은 그의 바닷속에서 겪은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마 배에서 던져진 얼마 동안은 바다 표면에서 파도와 물결에 떠밀려 허우적거린 듯합니다. 그러나 곧 그의 육체는 이제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면 물과 깊음이 그의 영혼까지 에워쌌는데, 해초가 그의 머리카락과 함께 엉켰다고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6절에서 그는 산의 뿌리-해협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그를 오래도록 막았다고 한 것을 보면, 그는 아마 가장 깊은 바닷속 골짜기의 어느 바위틈에 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죽어갑니다. 그의 의식은 절망한 자아와의 싸움 속에서 서서히 혼미해져갑니다. 그는 점점 무의식의 세계로, 곧 이어선 죽음의 세계로 밀려들어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순간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피곤하다는 단어는 ‘의식을 잃을 때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요나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고백을 합니다. 이 마지막 의식의 필름이 끊어져나가는 순간, 그는 최후로 ‘여호와를 생각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삽더니 ………"

여러분!! 마지막 때 의식의 오메가 포인트-마지막 지점-에서 오직 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 생각의 초점을 맞추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의식의 입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잠들거나 기절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것처럼 기절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철야기도나 새벽기도시 깊은 묵상 중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의 이름을 부르며, 혹은 의식하며 기도하다가 문득 무의식의 세계로 굴러 떨어져본 적은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제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며, 은혜로 다스려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무의식의 깊은 바다에서 홀연히 의식의 표면으로 솟구쳐 오르며 큰 위로를 주신 적도 있고,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큰 평안이 제 인격의 뱃속(중심부)에서부터 솟아올라 차고 넘치는 경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꿈속에서 성경을 읽거나 주님을 만나는 임재의식에 사로잡힌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께서 무의식의 바다를 밟고 제게 다가 오시며, 심층의식의 바다에서 불어오는 욕망과 죄악의 큰 꿈틀거림과 파도와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제 영혼을 달콤한 평화와 안식으로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때에 얼마나 깊은 영적인 힘과 용기와 확신을 순식간에 얻는지요. 오늘 요나도 그가 무의식의 입구에서 최후로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의 기도가 순식간에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도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7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즉 심층의식의 그 무한한 길은 지경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아야 합니다. 그곳은 내 의지와 양심과 도덕이 손달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프로이드의 표현대로 성적 충동(Libido)이 용(리워야단)처럼 꿈틀대는 욕망의 원초적 바다인 것입니다. 그곳을 지배하고 넘나드는 세력은 오직 마귀와 성령 하나님 둘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한의 영역을 거룩하게 정복하려면 오직 성령하나님의 능력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영혼이 아무리 피곤한 순간이요,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무의식의 입구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고 힘을 다하여 최후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분께 내 인격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진정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며 다스리시고, 내 기도와 의식을 성전에 도달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임마누엘 신앙, 곧 하나님 임재의식의 총명한 믿음이, 은총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을 어떤 위기의 구덩이에서도 건지시는 것입니다.

### 전인격으로의 예배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의 깊은 회고와 묵상을 한 끝에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까지 그의 의식(2절,4절)과 무의식(5절, 7절)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회상하며 깊은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참된 신앙이 관념의 차원에서만 무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이상숭배자의 신앙과 참된 여호와 신앙의 차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8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요 뉘우침인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으나 그는 지금까지 우이방인들이 이상 숭배하는 바로 그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머리속으로만 관념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는 배 위에서 이방선원들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1:9). 이 입술의 신앙고백은 정말 간결하면서도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주술과 마술과 신비적 제의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전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의 행위가 바로 그 자신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이전까지는 ‘베푸신 은혜를 버린 자’ 결국 이방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비극!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새롭게 결단합니다. 이번에는 머리로만 신앙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과 의지까지도 다 움직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9절). 그는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감정, 그의 내면의 모든 부분이 감사로 채워졌으며 이제 그 목소리, 노래 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서원은 ‘의지의 결단’이 내포된 맹세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그의

신앙은 이제 지, 정, 의의 모든 차원이 내포된 전인격적인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예! 구원은 오직 인격적인 하나님, 전인격이신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오는 것임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체험했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기도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를 니느웨 바로 앞의 육지에 토해내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명의 길, 니느웨로 가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아무리 우리들의 오늘의 삶이 마치 요나처럼 불순종한 삶이요, 또 그 결과로 자아가 왜곡되어 있고, 무의식의 입구에서 비틀거리는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생각합시다. 아무리 영과 육이 곤고한 순간일지라도 여호와를 생각합시다. 그러할 때에 구원은 바로 그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홀연히 임하는 것입니다.

**\* 출처 : 그말씀**